

chapter
12



제12장 재정정책

I.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 재정정책(fiscal policy): 정부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 추구

1. 조세정책

- ① 조세(tax)란 정부활동의 수입원으로 가치분소득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
- ②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와 간접세(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정액세($T = \bar{T}$)와 비례세($T = tY$), 누진세와 역진세
 - 자원배분 효과 : 상대가격 왜곡으로 발생
 - 소득분배 효과 : 누진세 제도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
- ③ 조세정책으로 가격변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과와 소득분배 효과 발생

2. 정부지출

- ①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은 공공부문의 수요 의미
- ② 일반행정, 공익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및 후생 복지의 증진을 위해 사용
- ③ 정부 기능의 다양화와 적극성으로 지속적 팽창(예산적자 누적)
- ④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제도 확충, 빈부격차 완화 정책
- ⑤ 소득분배 : 사회형평 차원
- ⑥ 민간 경제 자원 보완 :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렵거나,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
but, 외부경제발생, 소비성 지출, 경직성 경비는 민간 경제 위축 가능

2. 재정정책의 전달경로

1. 케인즈 학파 : 직접적

2. 통화주의 : 간접적

- ① 순수한 재정정책(pure fiscal policy)은 이자율 변동을 통해 총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
- ②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통한 구축효과(민간소비, 투자 감소)로 총수요 증가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
- ③ 극단적인 구축효과는 $G \uparrow \rightarrow i \uparrow \rightarrow \bar{Y}$ (LM 수직)

※ 순수한 재정정책은

- ①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지 않는 정부지출 또는 조세의 변화
- ② 민간대부시장(private loanable fund market)으로 부터의 차입금

◎ 재정정책의 전달과정

1. 케인즈학파
재정정책



총수요

2. 통화주의
재정정책



이자율



구축효과



총수요

3. 재정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은 위원회의 내부적인 비공식적 절차에 자주 의존하지만, 재정정책은 사람들이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

※ 확대재정정책 → IS 우측, AD 우측 → $Y \up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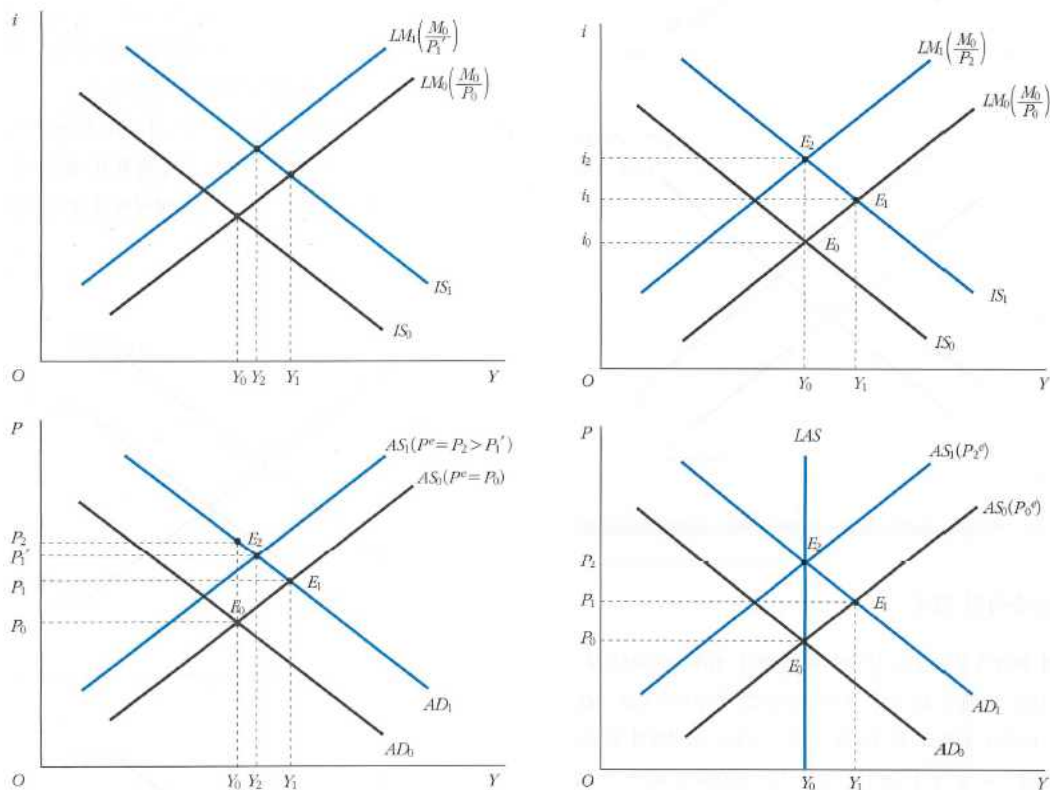
1. 단기: 가격이 비신축적인 경우 (새K)

- ① 가격이 비신축적이면 P 가 소폭 조정되어 LM이 소폭 좌측 이동
- ②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측된 정책일지라도 가격이 비신축적인 경우(단기) 경제정책 효과가 유효
(⇒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

2. 장기: 가격이 신축적인 경우

- ① 가격이 신축적이어서 $P^e \uparrow = P \uparrow$ 라면 예측된 재정정책은 총생산,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에만 영향
- ② 정책무력성 명제

〈그림 12-1,2〉 재정정책의 효과 비교



4. 구축 효과

1. 구축효과의 의미 : 재정정책의 유효성 판단 기준

- 통화주의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때문에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봄

2. 구축효과의 두 유형

(1)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안정적 : LM곡선이 가파

$$G \uparrow \rightarrow i \uparrow \rightarrow C \downarrow \rightarrow Y \downarrow$$

(2) 재정정책과 관련된 자산효과 : 소비, 화폐수요가 자산에 대한 증가함수일 때

- ① 공채가 금융자산이므로 소비와 화폐수요가 이자율과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W)에 의해서도 영향 받음

$$C = C(i, Y, W) \quad \frac{\partial C}{\partial W}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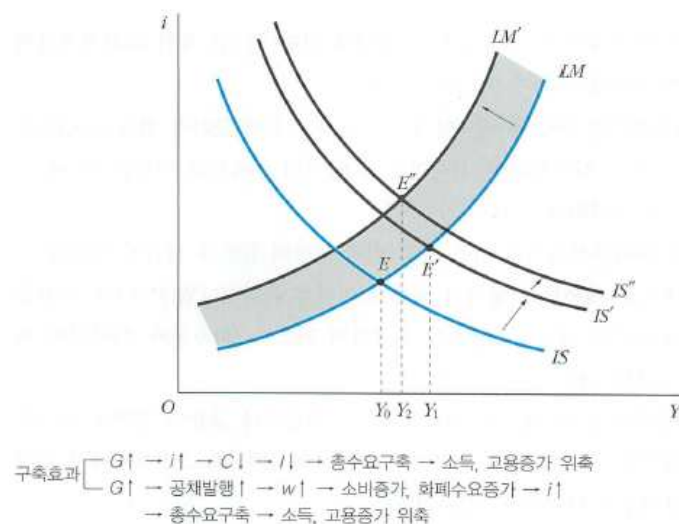
$$M^d = M(i, Y, W) \quad \frac{\partial M^d}{\partial W} > 0$$

- ② 자산효과가 반영된 구축효과는

$$G \uparrow (B \uparrow) \rightarrow W \uparrow \rightarrow C \uparrow, M^d \uparrow \rightarrow IS \text{ 우측} \rightarrow (자산효과) C \uparrow \rightarrow IS \text{ 우측} \rightarrow \text{but, (장기적) } M^d \uparrow \rightarrow LM \text{ 좌측}$$

- ③ 통화주의는 케인즈 학파와 달리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인 효과인 신규발행 공채가 민간보유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그림 12-3〉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5.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결합

1. 정책결합 의미

- ① 재정금융정책 결합(policy-mix)은 현실적으로 총수요관리정책에 있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양자를 결합해서 사용
- ② 행정부, 의회, 그리고 중앙은행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근 금융위기 이후 재정금융정책의 조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됨

2. 정책 결합 필요성

(1) 과도한 확대재정정책 부작용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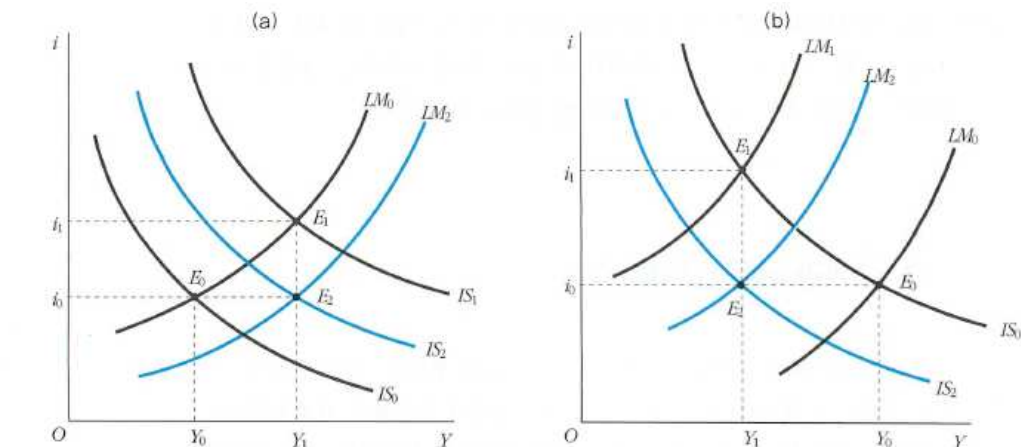
- ① 과도한 확대재정정책을 금융정책과 결합하여 정부지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데 효과적
- ② 소득증가를 위해 이자율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민간수요 구축 억제

(2) 경기과열로 긴축금융정책 부작용 방지

급격한 긴축금융정책만 추구하는 경우보다 재정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이자율의 갑작스런 상승을 방지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줄임

	가격신축성	가격경직성
예측된 재정정책	정책무력성(새古)	제한적 효과(새K 장기)
예측되지 못한 재정정책	제한적 효과(K 장기)	큰 효과(새K 단기)

〈그림 12-4〉 정책결합 효과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Y_0 \rightarrow Y_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결합시킴으로써 안정된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진정시키고자 할 때($Y_0 \rightarrow Y_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결합시킴으로써 이자율 안정속에서 소득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장기적인 성장촉진 정책

1.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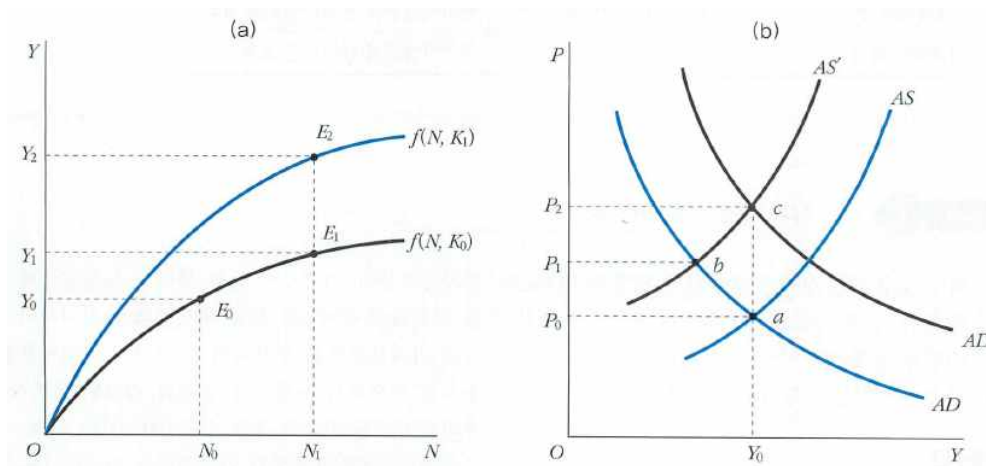
- 장기적인 성장촉진 정책은 AS에 영향

2. 정책수단

-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AS증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거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
- ① 신용보증, 정책 자금저리 융자, 생산보조금 지급
- ② 기업의 정보획득비용 축소,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활동 촉진 지원
- ③ (장기적) 노동자 근로의욕과 투자기회비용 감소로 기업 투자 촉진 위해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 ④ 기술개발 투자에 각종 조세지원책(조세 직접 감면과 기술개발 준비금제도, R&D 투자지원 제도, 투자세액공제)과 기술개발투자 비용장기 저리 융자

3. 정책효과

- ① 노동, 자본 모두 증가, 기술혁신($E_0 \rightarrow E_2$), AS 우측 이동해 총공급 증가
- ② 성장 잠재력 향상으로 생산효율성 증가, 생산 비용하락으로 완전고용 자체를 늘려 완전고용하에서 생산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음



7. 유동성함정하의 경제정책 효과

1. 유동성함정

(1) 의미

이자율(투기적 자산의 수익률)이 충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투기적 자산을 모두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상태

(2) 시사점

- ① 최근 일본, 미국에서 이자율이 거의 0% 수준
- ② LM곡선은 수평, AD곡선은 수직
- ③ 확대 재정정책($G\uparrow, T\downarrow$)은 승수효과만큼 발생(구축효과 ×)
- but, 확대금융정책($M\uparrow$)은 고용과 소득, 이자율과 물가에 전혀 영향 ×
- 통화량은 단지 투기적 화폐수요로 흡수될 뿐

2. 유동성 함정과 피구효과

(1) 의미

- ① 유동성 함정은 케인즈 학파 소비함수를 전제로 소비가 소득과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C = C(Y, i)$$

- ② 피구효과는 소비가 소득과 이자율 외에 부(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C = C(Y, i, W) = C\left(Y, i, \frac{M+B+K}{P}\right)$$

- ③ 신규화폐발행과 공채 발행은 정부나 기업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상환해 주어야 할 부채로서 국민들에게는 자산에 해당
- ④ 부의 소비증대효과 : 통화량의 증대는 부를 증가시켜 직접적으로 소비를 늘릴수 있는 효과

(2) 시사점

- ① $M\uparrow, \bar{P} \rightarrow LM\text{우측} \rightarrow (\frac{M}{P})\uparrow$ 현금잔고 늘려 $W(\text{부})\uparrow \rightarrow C(W)\uparrow \rightarrow IS\text{우측}$
- ② 일정한 물가수준하에서 유동성함정구간에서도 금융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